

原電에 대한 긍정적시각 확산

찬 : 석유위기 극복 위해 원전확대 불가피

반 : 풍력, 태양열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해야

＝原子力發電에 대한 市民討論會 開催＝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공동주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10월 17일 하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석유대체에너지로서의 원자력발전의 역할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中東事態와 原子力發電”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및 반핵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원자력발전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깊이있게 토의됐는데 일부의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원전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찬성측 연사들이 원자력의 연료확보의 용이성과 경제성 및 안전성을 들어 원전의 확대 추

진을 주장한데 비하여 반대측 연사들은 원자력발전의 유용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위험성을 들어 원자력이 아닌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주장하였다.

또 토론에 참가한 중립적 인사들은 대부분 원전의 계속 건설을 지지하면서도 신기술개발과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논조를 펴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찬성측 기초연설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이병희교수는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와 자원빈국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그 장점으로서는 원전은 경제성에서 화력보다 뛰어난 뿐 아니라 연료 소모량이 화석연료의 10만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료의 확보와 수송, 저장에 간편하며 석유나 석탄에서 처럼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므로 지구의 온실효과나 산성비와 같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이 나오고 있으나 그 양은 매우 적으며 현대 과학기술은 이를 안전하게 처리처분할 수 있는 기술 확립이 되어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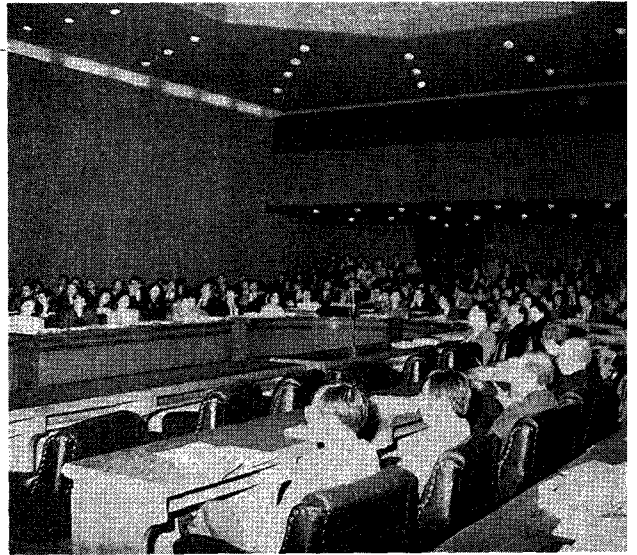
이교수는 특히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사고 및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위험도 비교에서 현행 법정기준치를 근거로 할 때 석탄화력의 위험도가 원자력에 비해 400배 정도 크다는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교수는 당면한 중동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공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우라늄 자원의 이용효율을 현재의 60배로 늘릴 수 있는 고속중성자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기초연설자로 나온 한국반핵반공해평화연구소의 오충일소장(목사)은 인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나 핵에너지는 그 한정성과 공해로 인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찾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대체방안으로 주로 핵에너지를 찾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이나 안전성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목사는 세계의 보존자원을 인류가 앞으로 40년정도 사용하면 고갈될 것이므로 에너지 문제를 전적으로 해외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외국인 손에 맡기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고 대체에너지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목사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오로지 원자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핵에너지는 폐로비용과 폐기물처리 비용을 합칠 때 경제성에서 화력보다 뒤지며 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중대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핵폐기물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여 반론을 제기했다.

오목사는 그 대안으로 태양열과 풍력, 소수력과 조력 등의 개발과 이용을 주장하면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이러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전남 영광의 설동선씨는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역주민의 요구는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원전이 들어섬으로써 지역이 개발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랬으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국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또 숙명여대의 김명자교수는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의 낭비방지와 효율적 이용을 주장했다. 홍주보 울진원자력발전소장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기형가축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모기에 의하여 전염되는 아카바네병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원자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풍력이나 태양열 이용이 대체에너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그것은 그것대로 공해가 크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량의 에너지를 얻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원자력개발이 최선의 석유대체방안이라고 주장했다.